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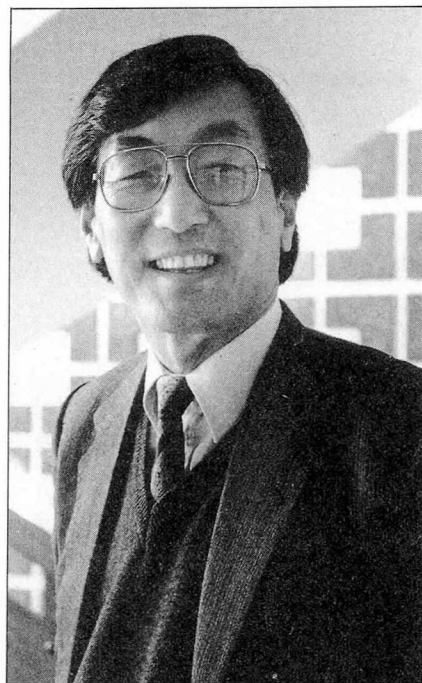
# 축제의 기능에서 놀이·굿까지

20년째 끌어온 「祝祭의 연구」

李相日

성균관대 교수·독문학

축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내가 전공으로 하는  
예술축제도  
'생활축제'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다짐이 굳어져 간다.



‘축제’를 주제로 삼아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1968, 9년 스위스 추리히대학 수학기절부터였다. 그 당시 드라마를 공부하면서 연극의 기원을 축제에다 연결시킬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신 분은 스위스 연극박물관장이었던 슈타들러 박사였는데, 그 분은 오히려 순수 연극학 계통이어서 나의 민속인류학적인 축제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축제로 말하면 스위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승된 향토축제는 오히려 민속학적 인류학적 안목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도겠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 나의 「축제연구」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 까닭은, 슈타들러 교수의 연극학적 접근의 축제관이 오히려 더 영향을 주게 된 이 7, 80년대의 내 심경변화를 들 수 있다.

처음은 단순히 내 전공인 독일문화권의 도르프 페스트(Dorffest)를 개관해서 우리의 축제에 대한 지표로 삼으려다가, 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각지의 민속조사와 굿의 드라마에 대한 관심 및 민속축제에 관여하면서 축제의 비교문화론적인 저술을 기획하게 되었다. 1983년 일본의 축제연구를 위한 국제교류기금의 지원과 일본 체류 및 그 사이에 활발해진, 공연예술부문 및 인류학에서의 演行論(Performance theory)의 영향으로 나의 「축제연구」는 굿·잔치·난장의 오지(orgy)론으로 확산되어 ‘축제’ 자체가 행방불명이 될 판이다.

가능하면 축제의 기호론과 해석학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축제연구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예단 때문에, 저작구상과 실제 진행은 그 껍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금년초에 내 능력 안에서 마무리를 빨리 짓기 위해 일단 목차까지 마련해서 ①축제의 역사 ②축제의 종류 ③축제의 기능을 따로 다루고 ①축제와 놀이 ②축제와 난장 ③축제와 연극(예술)등을 다룰 구체적인 계획까지 짜보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나의 「축제연구」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세계의 축제에 대해서 한국의 축제가, 과거의 민속·향토축제에 대해서 현대의 축제가, 그뿐만 아니라 대학의 축제, 관광축제, 도시축제, 스포츠(올림픽) 축제와 그와 관련된 문화예술 축제가 갖는 축제의 과제는 광범위하다.

그렇게 축제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축제의 모든 것이 내가 전공으로 하는 연극예술의 축제로 귀착되고, 그런 예술축제도 결국은 ‘생활축제’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결론 비슷한 다짐이 굳어져 간다.

그런 다짐이 확실해지면 집필은 그다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축제에 대한 나대로의 방향이 너무 오래되어서 어서 이 과제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구상이 중요한 것이지 집필 자체는 고행이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구상이 구체화되고 목차가 짜여진 집필기간이 가능하면 우리의 축제적 계절이었으면 싶다. 어쩌면 그 동안 축제에 대한 나의 연구가 지부진했던 까닭은 시대가 가짜축제를 강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진정으로 ‘축제’를 꿈꾸는 민족에게 축제의 본질을 깨우쳐 주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 좌절 딛고 선 정직한 삶

「不妊時代」2부

玄吉彦

소설가

1부가 한 개인의 삶을  
마멸시키는 폭력에  
촉점을 두었다면,  
2부는 그것을 극복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여름 낸 「불임시대」 책 머리에 밝혔듯이, 가짜 이데올로기의 폭력에 훼손당하는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의 허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한 역사학도 강철규에게 어떤 선택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는 이미 생각이 서 있었다. 1부에서 역사학도의 실존은, 비단 한 시대를 잘못 살았던 강철규 개인의 문제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갖가지 폭력에 대한 대응 양식으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려 했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폭력이 사라지고 한 지식인의 창조적 삶을 통하여 작게나마 역사발전의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 다소 열려질 수 있는 현실이 된다면, 한 편의 소설을 쓰지 못하더라도 다행이라고 솔직했었다. 그 ‘책머리 글’은 아직 잔설이 가지지 않은 이른 봄에 썼던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 동안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변화의 와중에도 다시 2부를 쓰기로 마음을 굳혔다. 오늘의 현실에 대한 내 자신의 회의적 반응이 스스로도 못마땅해 하면서도 다시 유보해 두었던 2부를 쓸 수밖에 없다.

실종된 후 강철규는 친구 민상규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그의 잠적이 ‘자신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무화시키는 의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작은 역사나마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연단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사실 강철규는 그때까지만도,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온 것으로 알아왔지마는, 몇 달 동안 몸을 위탁한 새로운 삶의 공간에서, 그는 비로소 인간의 삶의 다양한 실상과 거기에서 오는 순수한 진실의 편린들을 어렵פות하게 인식하면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 그곳에서

고석진을 만나고 다시 〈비목〉의 馬여사와 연락이 닿는 가운데 많은 것을 시도하다가 좌절한다. 그러는 가운데 80년 봄이 온다.

그는 고석진과 그리고 새로 만난 여러 사람들과 자신의 삶의 몫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일을 기도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 또한 사회와 역사라는 것을 아주 단선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좌절한다. 그것은 단지 외부적인 힘의 폭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간 내부에 잠재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몰고 온다. 그 점에서는 민상규도 마찬가지다. 그도 어두운 세월에서 벗어나 새로 열려진 역사를 내다보며 많은 일을 기도하다가 좌절한다. 어쩌면 그들의 좌절은 70년대 정황보다 더욱 심한 것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유독 馬여사만은 〈비목〉을 정리한 후 그녀가 의도한 일을 새롭게 시도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민상규와 강철규는 어두운 방안에서 그 점을 생각한다.

2부 역시 그들에게 주어졌 정황이 1부에서보다 크게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상규 강철규 고석진 등이, 세상을 되도록 정직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싸움들을 스스로 찾아 하겠다는 데, 그들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하나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부가 한 개인의 삶을 마멸시키는 폭력에 촉점을 두었다면, 2부는 그것을 극복하는 정직한 삶의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찾아보려는 데 관심을 갖고 쓰고 있다. 아마 한 1천여 장이 될 것이다.